

청소년의 흡연행위에 관한 태도 연구

(Q방법론 적용)

최 선 하 (원주대학 간호과)

목 차

I. 서론	V. 결론 및 제언
II. 문헌고찰	참고문헌
III. 연구방법	영문초록
IV. 연구결과	

I. 서론

질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건강한 생활양식을 습관화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위해는 폐암, 심장질환, 위궤양, 임신의 합병증 등 다양하고 심각할 뿐아니라 그 시작연령이 빠를수록 더욱 크다는 것이 이미 인정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간접흡연에 관한 위험 역시 마찬가지로 심각하다는 것이 학계에 지배적이다.

청소년은 신체적인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으며, 음주, 본드, 약물사용 등 각종 비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개인의 문제일 뿐아니라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흡연동기에 집단동일시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Moshach & Levental, 1988)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청소년 흡연 예방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청소년기의 흡연은 성인기 흡연의 강력한 예측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인기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여 장기화 될 경

우 미래의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흡연과 건강에 관한 교육은 어려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바, 학교는 생활교육으로 행동변화를 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다. 보건교육을 받은 학생은 건강정보나 지식을 잘 알고 있을 뿐아니라 이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보건교육은 국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인간은 자신이 세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므로(최정훈, 1971) 개인의 흡연행위는 그들의 관심, 동기, 기대, 태도와 같은 주관적인 구조에 따라 다양하고 독특한 양상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흡연행위에 대해 느끼는 각 개인의 주관성(태도나 의견)에 관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흡연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흡연행위에 관한 연구는 흡연 실태 및 흡연 관련요인 조사(Clayton, 1991; 정영숙, 1999; 맹광호, 1988; 현혜진, 1998; 소희영, 김현

* The 15th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the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의 발표 논문임.

리, 1998)와 금연전략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최정숙, 1999; 신성례, 1997; 오현수, 김영란, 1997)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졌으며, 흡연행위의 주관성을 파악한 것은 김문실, 김애경(1997)의 연구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최근 문제시되는 흡연이라는 보건 과제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며, 행동의 적부를 평가하고 인지하는가를 행위의 주관성 연구에 적합한 Q 방법론을 적용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즉 청소년의 흡연행위에 관한 태도를 유형별로 파악함으로써 학교에서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방법과 내용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 구조를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 하였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흡연행위에 관한 태도를 유형화 한다.
2. 파악되어진 태도의 유형별 특성을 서술한다.

II. 문헌고찰

10여년 전부터 금연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흡연율이 50% 이상 감소한 반면 한국에서는 새로 흡연을 시작하는 청소년층과 젊은 여성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전상임 등, 1992).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 실태 및 흡연관련 요인을 조사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청소년은 호기심, 스트레스, 친구의 영향으로 흡연을 시작하며(김경희, 1997; 현혜진, 1998), 서울시 15세-19세 사이의 청소년 흡연율은 25.8%(남정자 등, 1998)이며, 남자 흡연자의 흡연시작 연령은 15-18세 사이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김경희, 1997; 현혜진, 1998; 지연옥, 1994).

Moshach & Levental(1988)은 청소년의 집단 동일시가 흡연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하면서, 18세 이전에 담배를 피울 경우 평생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소년의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요인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성인기 흡연 양상은 흡연 횟수나 흡연양이 많고 기간이 길므로 청소년에 비해 습관으로 고착되기 쉬우며 중독이나 사회심리적 의존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미 습관으로 고착된 경우 금연

에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여 성인 흡연자의 70-90%가 금연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8-34세 연령층은 중년이나 노년에 비해 금연성공율이 낮다는 보고이다(신호철, 1992; 이창희 등, 1992).

가정에서 부모가 흡연할 경우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흡연을 많이 한다는 보고가 있으며(Altrocchi, 1980), 흡연 고등학생의 45.7%가 교사의 흡연을 보면 흡연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고 하였다(고막래, 1990).

이러한 결과로부터 청소년 흡연은 성인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성인기 이전에 흡연에 중독되지 않으면 흡연율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모 및 교사의 흡연이 청소년에게는 환경적인 자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흡연의 유해성에 관한 지식이 금연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결과들이 제시되어 있다. 금연교육 실시 후 군인들의 흡연지식 점수가 상승되었으며, 흡연에 관한 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행위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연구가 있다(지연옥, 1988). 백남영(1986)의 연구에서는 과거 흡연자의 흡연중단 이유로 60.3%에서 흡연의 유해성을 알기때문이라고 응답하여 흡연관련 지식과 금연간에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고등학생 2,48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흡연과 관계있는 요인을 2년간 종단적 분석한 연구에서는 지식이 흡연습관의 변화와 관련이 없음을 보고하였다(Eckhardt, Woodruff & Elder, 1994). 706명의 고등학생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실험군에게 금연교육을 실시한 김택민(1990)은 실험군에서 흡연의 유해성에 관련된 지식이 상승되었으나, 흡연율은 교육을 받지 않았던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다고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흡연의 유해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이 금연을 시도하는것에 도움이 되었으나 지식 그 자체만으로 행동변화를 유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금연전략을 활성화하는 연구로 다음과 같은 것이 보고되어 있다.

신성례(1997)는 흡연하는 남자 고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자기조절 전략, 금연하는 청소년 모습을 그린

〈표 2〉 Q - 분류의 점수배열

	(-4) 강한반대	(-3)	(-2)	(-1)	(0) 중립	(+1)	(+2)	(+3)	(+4) 강한찬성
점 수	1	2	3	4	5	6	7	8	9
카드수	2	3	4	5	6	5	4	3	2

비디오 프로그램, 전화상담으로 구성된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self-regulatory efficacy promoting program)을 4주간 적용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금연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고한 다른 연구로는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남자 대학생 16명에게 인지행동요법(cognitive behavior therapy)을 적용한 금연프로그램을 1회 60분씩 5회에 걸쳐 수행한 결과 일일 흡연량과 니코틴 의존도가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가 있다(최정숙, 1999).

Q 방법론을 이용하여 흡연대학생의 흡연행위 유형을 파악한 연구에서 김문실, 김애경(1997)은 고착형(adherent type), 주저형(hesitating type), 놀이형(play type)의 세가지 유형을 발견하였으며, 각 유형에 따라 그 접근 방법을 차별화 할 것을 권하였다.

이렇듯 흡연율을 감소시키려는 금연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정작 이보다 앞서 수행되어야 할 청소년 흡연행위의 주관적인 태도를 묻는 심층적인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보건교육 전략의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중심으로 흡연행위에 관한 주관적인 태도를 유형화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Q 방법론은 발견에 초점을 둔 가설 채택의 의미를 지닌 방법론으로서, 인간의 주관성 구조에 따른 각 유형별 이해가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이 청소년

의 흡연행위에 관한 태도 유형을 파악하여 그 특성을 기술하는 데 있으므로 연구목적에 적합한 Q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2. 연구절차

1) Q- 표본과 분포도

본 연구를 위한 Q- 표본은 흡연행위에 관한 태도로 구성된 진술문이다. 진술문 표본을 작성하기 위하여 문헌 및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중고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총 231개의 Q-population을 모집하였다.

이렇게 모집된 Q-population을 중복을 피하면서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여러차례 점검하여 흡연행위와 관련된 가치, 신념, 동기, 기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태도에 관한 진술문 34개를 Q-sample로 채택하였다(표1).

표본으로 선정된 진술문은 5×7cm 카드에 인쇄한 후, 〈표 2〉의 분포모양으로 강제 분류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및 분포도의 양 극단에 놓인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2) P-표본

본 연구는 한국 남녀 중고등학생의 흡연행위에 관한 태도를 살피는 것이므로 P-표본은 2×2 factorial design 으로 4개의 cell에서 거의동수가 되도록 선정하여 총 33명(남중 7명, 남고 8명, 여중 10명, 여고 8명)이 참여하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이 완료된 후, 수집된 33명의 자료를 코딩하

〈표 1〉 진술문 표본 및 각 유형별 표준점수

진술문	유형 I (14)	유형 II (13)	유형 III (6)
1. 중·고등학교 시절에 흡연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1.9	-.3	-1.1
2. 나는 성인이 되어도 흡연을 하지 않을 생각이다.	1.7	-.1	1.7
3.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싫다.	.8	-.6	1.2
4. 담배를 피우면 짜증이나 스트레스가 진정된다.	-.1	.3	-1.1
5. 담배는 맛있는 듯이 느껴진다.	-.4	-.6	-1.4
6. 흡연행위는 남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준다.	1.2	1.1	1.9
7. 담배를 피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4	1.8	-.1
8. 여성 흡연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5	.5	1.0
9. 나는 젊기 때문에 흡연으로 건강에 이상이 올 것 같지 않다.	-1.2	-1.9	-1.7
10. 대중매체의 미화된 흡연장면은 흡연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6	.4	.7
11. 가능한 주변 친구들이 담배를 안피우도록 만들고 싶다.	1.4	.6	1.6
12. 담배는 날라리들이 끼리끼리 어울리며 피운다.	.7	-1.1	-.6
13. 어른은 피우면서 아이들은 못 피우게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4	.6	-.6
14. 스스로 탐색하면 담배에 의지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1.1	.7	.8
15. 흡연행위는 자기 몸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이다.	1.5	1.3	1.7
16. 처음부터 담배를 안피우는 것이 최고이다.	1.6	1.9	.0
17. 나는 담배 피우는 것을 밥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본다.	-1.4	-.2	.1
18. 친한 친구가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충격을 받았다.	.7	-.5	-1.2
19. 흡연하는 친구는 흡연하는 친구와 더 친해진다.	.4	.5	-.3
20. 흡연하는 친구는 안좋게 변한다.	.3	-1.4	-.7
21. 흡연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은 효과가 있다.	.3	-.1	-.7
22. 여성은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 하므로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한다.	1.0	.3	.8
23. 담배는 꿈을 의지만 있으면 꿀을 수 있다.	.6	1.4	.7
24. 친구간에는 화목해야하고 선배에게는 복종해야하므로 담배를 권할 때 받아 피우게 된다.	-.9	-1.5	-1.2
25. 흡연하면 암기력이 떨어져서 성적이 떨어진다.	.4	-.0	.6
26. 자신이 조절할 수 있으면 술이든 담배이든 나쁘지 않다.	-1.1	1.9	-.3
27. 밤늦게까지 혼자있는 시간이 많고 친구들과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진학(취업)문제도 있어서 담배를 피운다.	-.6	-.4	.2
28. 청소년 흡연은 우리나라 입시제도와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2	-.4	-.1
29. 청소년 흡연을 차라리 인정하고 학교에 흡연방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1.9	.5	.6
30. 친구가 권하면 나도 담배를 피울 것 같다.	-1.7	-.4	-1.6
31. 청소년 흡연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 하는 행위이다.	-.5	-.7	.2
32. 여학생의 경우 체중조절을 위해서 담배를 피운다.	-.4	-.4	-.2
33. 담배는 친구들이 피우는데 왕따 당할까봐 피우는 것이다.	-.6	-2.1	-1.2
34. 흡연 행위는 멋있게 생각되고, 이성관계에서 잘 보이려고 담배를 피운다.	-.6	-1.1	.2

〈표 3〉 유형별 Eigen value와 변량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
Eigen values	12.13	3.81	1.52
Variance	.36	.11	.04
Cumulative	.36	.47	.51

〈표 4〉 유형간의 상관관계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	1.00	.32	.58
유형 II		1.00	.50
유형 III			1.00

여 컴퓨터에 입력시켰다. 코딩은 Q분포도에 기록된 진술문의 번호를 확인해 가면서 가장 반대하는 경우(-4)를 1점으로 시작하여 (-3)에 2점, (-2)에 3점, (-1)에 4점, 중립(0)에 5점, (+1)에 6점, (+2)에 7점, (+3)에 8점, 가장 반대하는 경우(+4)는 9점을 부여하여 점수화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PC QUANL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Q-요인 분석은 주요인 분석으로 처리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Eigen value 1.0이상을 기준으로 요인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된 결과 중 최선이라고 판단된 유형의 요인 수를 선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의 흡연행위에 관한 태도 유형 분석

조사 대상자들이 분류한 진술문을 토대로 흡연행위에 관하여 비슷한 진술문을 선택한 대상자끼리 유형을 이루는데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3개의 유형은 전체 변량의 약 51%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설명력은 제1유형이 36%, 제2유형이 11%, 제3유형이 4%의 설명력을 보였다(표 3).

한편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1유형과 제3유형,

제2유형과 제3유형간에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구성을 보면 제1유형이 14명, 제2유형이 13명, 제3유형이 6명으로 되어있으며, 각 유형내에서 인자 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에서 전형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다(표 5).

2. 청소년의 흡연행위에 관한 태도 유형별 특성

다음에 흡연행위에 관한 태도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며, 각 유형의 특성을 어떻게 명명할 수 있는 지 제시하고자 한다.

1) 제1유형 : 부정형(Negation type)

제1유형의 특성은 학생 흡연 뿐아니라 성인 흡연을 반대하며 본인도 흡연의사를 갖고있지 않은 유형이다(Z=1.70).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를 심각하게 느끼며, 간접흡연의 영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또한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 하므로 여성흡연을 반대하는 입장이다(Z=1.01). 가능한 한 주변 친구들도 흡연하지 않기를 바라며, 친한 친구의 흡연 사실을 당황스럽게 받아들이고, 흡연 외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원한다.

흡연 특히 청소년 흡연은 신체적 건강 뿐아니라 자신

〈표 5〉 P-표본의 유형별 인자 기중치

유형 I (n=14)					유형 II (n=13)					유형 III (n=6)							
25	25	중2	여	N.S*	2.9745	13	13	고2	남	S**	1.4423	28	28	고2	여	N.S	1.4458
30	30	고2	여	N.S	2.9333	11	11	고2	남	S	1.4103	24	24	중2	여	N.S	1.3059
18	18	중1	여	N.S	2.7804	26	26	고2	여	N.S	.9352	5	05	중2	남	N.S	1.0114
21	21	중2	여	N.S	2.6981	17	17	중1	여	N.S	.8778	2	02	중2	남	N.S	.9019
6	06	중2	남	N.S	2.1156	10	10	고2	남	S	.7283	22	22	중2	여	N.S	.6332
29	29	고2	여	N.S	1.8836	9	09	고2	남	N.S	.7100	7	07	중2	남	N.S	.3732
16	16	중1	여	N.S	1.7220	14	14	고2	남	S	.7022						
32	32	고2	여	N.S	1.5836	8	08	고2	남	S	.6786						
3	03	중2	남	N.S	1.5163	31	31	고2	여	N.S	.5197						
4	04	중2	남	N.S	1.2674	12	12	고2	남	S	.4708						
23	23	중2	여	N.S	1.0404	1	01	중2	남	N.S	.3392						
20	20	중2	여	N.S	.9089	15	15	고2	남	S	.4419						
27	27	고2	여	N.S	.7397	33	33	고2	여	N.S	.2886						
19	19	중1	여	N.S	.6457												

* N.S.=Non Smoker ** S.=Smoker

의 생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며, 담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흡연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유형으로서 '부정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제1 유형은 흡연하지 않는 청소년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2) 제2유형 : 자기 선택형(Self-Choice type)

제2유형에는 현재 흡연하는 학생이 속해있다. 이들은 주위 친구들의 영향에 휩쓸려 흡연하는 것이 아니며 ($Z=-2.08$), 흡연행위는 자신이 원해서 선택한 것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담배는 나쁘지 않다고 하였다 ($Z=1.93$). 미래의 건강을 위하여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좋으나 담배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특별한 동기 없이 흡연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미 흡연하는 학생 인구가 많이 있고, 불량학생만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므로 흡연은 학생 사회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 진다고 하였다. 이들은 여성흡연에 관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한 학생은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인정하면서도($Z=-2.08, 1.51$), 흡연을 개인의 자유($Z=1.73$)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Z=1.33$) 생활 속에서 흡연을 인정하는 입장으로서 '자기 선택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제2유형은 흡연하는 청소년의 유형이라

고 할 수 있다.

3) 제3유형 : 주관적 거부형(Self-Perceived Refusal type)

이 유형에 속한 사람은 흡연의 간접피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Z=1.92$), 담배피우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를 싫어하고($Z=1.20$), 담배의 맛이 매우 고약할 것으로 생각하여($Z=-1.40$) 흡연에 대해 자기방어적이면서 감정적인 거부반응을 보인다. 또한 자신은 흡연을 반대하며 흡연하지 않을 생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Z=-1.59, Z=1.74$).

반면 동료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동기를 이해하고, 흡연 자체가 학교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친한 친구의 흡연행위를 용납하고($Z=-1.21$), 학교에서 흡연방을 마련하는 것에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다. 여성흡연과 관련하여 남성흡연과 차별을 두는 것에 반대하지만($Z=1.04$) 출산과 관련하여 여성흡연을 수용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러한 시각은 일반적인 학생흡연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나와는 무관한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뜻한다.

즉 제3유형에 속한 사람의 특성은 타인의 흡연행위를 방관하거나 또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흡연을 반대하며 흡연하지 않을 생각임을 분명히 하여 '주관적 거부형'이라고 명명하였다.

V. 논 의

흡연의 유해성에 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접근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흡연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시작하는 연령이 빨라지고 있다. 흡연행위는 행위자가 행위에 부여하는 주관성의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흡연행위에 관한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드러난 제1유형인 부정형의 경우 흡연행위는 신체에 해롭고 간접흡연의피해를 주며 자기 자신의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나쁜행위로 규정하여 흡연을 인정하지 않는 유형이었다.

이들은 학생흡연이 나쁘다는 기성세대의 교육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의식화된 것으로 보인다. 흡연의 위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므로 주기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며 우연한 흡연의 유혹에 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겠다.

제2유형인 자기선택형의 경우는 현재 흡연을 하고 있거나 흡연 할 가능성이 많은 학생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한 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며 바, 첫째,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동등한 인격을 가지며 아이 취급 받기를 거부하는 한편 어른이 되고 싶어서 흡연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선택과 자유로 흡연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표현함으로써 청소년 특유의 어른의 권위에 대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흡연의 유해성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건강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셋째, 금연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자신의 의지로 금연할 수 있음을 자신있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청소년의 흡연이 아직 습관으로 고착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상의 특성으로 미루어 학생 지도 전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보건교육의 접근은 신체적 피해나 죽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흡연으로 손상된 폐조직의 실물 제시, 병원 탐방, 비디오 교육 등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간접체험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또한 학생의 금연 유도를 위하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수용하는 자세로 접근하여 흡연 위해의 경각심을 높여줌으로써 금연의 의지를

한 단계 올려주는 접근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요구와 흥미를 고려한 금연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유형에 속한 학생들이 자신의 의지로 금연할 수 있음을 표현한 것에 미루어 보아, 잘 마련된 금연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하여 학생 흡연인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3유형은 주관적 거부형으로서, 일반적인 학생 흡연의 현실을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자신은 흡연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관적 거부감이 뚜렷이 나타나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제1유형의 속성은 담배를 왜 피우는 지 이해할 수 없으며 담배는 나쁘므로 흡연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면 제3유형은 담배를 피우는 동기를 이해하고 친한친구의 흡연을 인정하며 타인의 흡연행위는 수용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흡연행위가 감정적으로 싫고 건강에도 해가 되므로 거절하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한 사람은 흡연에 관한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기 보다는 자신의 주관으로 흡연행위에 관한 의식이 형성되어있으므로 장래의 흡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식 제공과 함께 본인의 견해를 지지해 주면서 주위 친구들을 선도하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흡연행위에 관한 태도를 유형별로 분석함으로써,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학교에서의 흡연관련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 구조를 제시하고자 1999년 2월 1일 ~ 8월 15일 까지 Q 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졌다.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와 중고등학생 15명을 직접 개인면담하여 34개의 진술문을 마련하였으며 33명을 대상으로 유형분석을 시행하였다. 얻어진 자료는 1점 부터 9점까지 점수화하여 코딩하였으며 PC QUANL program 으로 분석하여 청소년 흡연행위에 관한 3가지 유형을 파악하였다.

제1유형은 '부정형'으로서 흡연은 나쁘므로 흡연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유형이었다. 제2유형은 '자기 선택형'으로서 흡연행위는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흡연을 수용하는 유형이었다. 제3유형의 경우 타인의 흡연행위는 인정하지만 자신은 흡연을 분명히 거절하고 있

어서 '주관적 거부형'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흡연에 관련된 보건교육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각 유형에 적합한 흡연예방 및 금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고막래(1990), 남녀고등학생들의 흡연지식, 인식, 행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희(1997), 중학생의 흡연예방 교육, 한국학교보건학회 동계 학술대회 자료집 : 55-68
- 김문실, 김애경(1997), 대학생의 흡연행위 유형에 대한 연구, 간호학회지, 27(4) : 843-856
- 김택민(1990), 고교생들에 대한 금연교육 효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정자, 윤강재, 계훈방, 이상호, 김혜련, 최은진, 서미경, 김응석(1998), 서울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수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맹광호(1988), 한국인 성인 남녀의 흡연 관련 사망에 관한 연구, 한국역학회지, 10(2) : 138-145
- 백남영(1986),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의 담배 흡연에 따른 지식,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소희영, 김현리(1998), 청소년의 건강증진 행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2(2) : 107-121
- 신성례(1997), 흡연 청소년을 위한 자기조절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호철(1992), 가정의학 진료의 금연 전략, 가정의학회지, 13(2) : 101-105
- 오현수, 김영란(1997), 금연과정의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간호학회지, 27(1) : 71-82
- 이창희, 서요숙, 조용준(1992), 가정의학과 외래 환자의 흡연 양상, 가정의학회지, 13(11) : 853-861
- 전상임, 박용우, 김철환, 정유석 외(1992), 의사의 금연 교육이 환자의 흡연 습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가정의학회지, 13(6) : 503-508
- 정영숙(1999), 일 지역 성인의 흡연 실태,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3(1) : 97-113
- 지연옥(1994), 군 흡연자의 금연 행위 예측을 위한 Theory of Planned Behavior 검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지연옥(1988), 금연을 위한 교육 방법별 접근이 흡연 행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정숙(1999), 인지행동요법을 적용한 금연프로그램의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정훈(1971), 지각 심리학 : 인간 행동의 이해, 서울 : 을유문화사
- 현혜진(1998), 일부 대학생의 금연 의도 예측을 위한 계획된 행위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의 검증, 지역사회간호학회지, 9(1), 117-127
- Altrocchi, J.(1980), Abnormal behavior(1st ed.), N.Y. :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Clayton, S.(1991), Gender differences in psychosocial determinants of adolescent smoking, Journal of Social Health, 61(3) : 115-120
- Eckhardt, L., woodruff, S. I. & Elder, J. P.(1994), A longitudinal analysis of adolescent smoking and it's correlates, Journal of School Health, 64(2) : 67-72
- Moshach, P. & Levental, H.(1988), Peer group identification and smoking :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 238-245

An Attitudinal Study of Smoking Behavior among Korean Adolescents

Sun-Ha Choi (Dept. of Nursing, Wonju National College)

This study, aimed to categorize attitude of smoking behaviors among adolescents and to provide useful data for development of anti-smoking programs for students was conducted from February 1 to August 15, 1999, using the Q method.

After reviewing the literature and preceding studies, the researcher proceeded to interview 15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thereupon, developed a statement form consisting of 34 items. Then, 33 students were sampled. The collected data were coded after having been scaled from "1" to "9", and then, was analyzed using the PC QUANL program. After all, three types of adolescents were identified.

The first type or "negation" type students perceive smoking as bad habit, and therefore, do not admit of smoking. The second type or "self-choice" type students conceive that any one can smoke depending on their judgement, and therefore, admit of other students' smoking. The third type or "self-perceived refusal" type admit of other students' smoking, but refuse smoking for themselves.

Lastly, it is believ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be useful for designing anti-smoking health programs for our adolescents. It is also hoped that this study would be followed up by such studies suggested by th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nti-smoking programs for each category of students.